

샤모니 마을 위에서 빅터 프랑켄슈타인에게 전하는 내 말
: 트랜스젠더 분노를 수행하기

GLQ 1, 1994

수잔 스트라이커
백소하 역주
김호영 감수

서문

아래의 저작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샌마코스에서 1993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예술,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 학회인 “학문 분과를 가로지르는 분노”에서 초연한 공연 작품을 글의 형태로 각색한 것이다. 공연과 학술 논문 모두를 요청하는 학회, 주제, 그리고 주최자들의 학제적(學際的) 성격은 당시 내 머릿속을 좀체 뜨지 않던 주제를 발표하는 방식이 창의적이도록 이끌었다. 전투적으로 귀어하고 직접행동주의적인 성전환자 압력 단체 ‘트랜스젠더 네이션’¹⁾의 구성원으로서, 당시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1993년 미국심리학회 연례 회의에 대항하는 방해와 시위를 조직하는 데 참여하였다. 우리의 계획 모임에서 토의는 대개 성전환자의 경험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감정들, 특히 분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효과적인 정치 행동에 동원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나는 젠더 수행성 개념의 특이한 응용을 통해 이 분노를 더욱 학적인 환경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시각에 큰 흥미를 느꼈다. 내 발상은 귀어 젠더를 단순히 말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개념이 논의 중인 동시에 그 개념을 체현하고 실행하는 것이었다. 나는 젠더 사이에서 벌어지는 갑작스럽고 대개 뼈저리는 우리의 전환을 복제함으로써 하나의 트랜스젠더 미학을 표현할 작업의 형식적인 구조를 원했다. 내 성전환성이 적합한 젠더의 관습에 도전하고 학회장에서의 내 공연이 용인되는 학적 담론의 경계에 도전하듯이, 내 말의 형식을 통해 일반적인 분류에 저항하는 방식 말이다. 공연 동안, 나는 젠더퍼킹²⁾ 드랙을 하고 연단에 섰다. 전투화, 검은 레이스 바디수트 위에 올리 드러난 리바이스 501 청바지와 목과 소매를 잘라낸 찢어진 트랜스젠더 네이션 티셔츠, 세모진 분홍색 석영 펜던트, 그린지 메탈 장신구, 그리고 길고 무거운 스테인리스강 사슬에 매달아 내 목 근처에서 달랑거리는 청새치 낚시바늘. 나는 패널 책상의 내 의자에 검은 가죽 라이더 재킷을 덮어 무대를 장식하였다. 재킷의 왼쪽 어깨에는 수갑이, 오른쪽 레이싱에는 무지개 프

1) (역자주) Transgender Nation. 1992년에 설립된, 귀어 네이션의 트랜스젠더 포커스 그룹. 후술할 귀어 네이션의 샌프란시스코 지부에서 ‘Trans Power/Bi Power/Queer Nation’ 문구의 스티커를 배부한 적이 있는데, 트랜스젠더 인권활동가이자 소프트웨어 공학자인 앤 오그본(Anne Ogborn, 1959~)은 이 스티커에서 ‘Trans Power’ 부분을 뜯어내고 트랜스를 귀어 운동의 일부로 여기지 않는 여성을 집회에서 만나게 된다. 한 달 뒤의 귀어 네이션 모임에서 오그본은 집단 내의 트랜스혐오에 대해 항의하였고, “트랜스젠더의 쟁점에 헌신하는 포커스 집단을 조직하라는 권고를 받”아 창립하게 된다. (수잔 스트라이커, 『트랜스젠더의 역사』, 제이·루인 옮김 (서울: 이매진, 2016), 208-209.)

2) (역자주) genderfucking. 위키낱말사전은 genderfuck을 “젠더 정체성과 젠더 역할의 전통적 관념을 전복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정의하며(“genderfuck - Wiktionary”, Wiktionary, the free dictionary. Accessed July 27, 2020. [https://en.wiktionary.org/wiki/genderfuck.](https://en.wiktionary.org/wiki/genderfuck)), Whittle은 이를 “젠더와 성별 역할의 이형성(二形性)에 대한 가차 없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공격”이라고 표현한다(Stephen Whittle, “Gender Fucking of Fucking Gender?”, Chap. 14 in Richard Ekins and Dave King, *Blending Genders: Social Aspect of Cross-Dressing and Sex-Changing*, (London: Routledge, 1996), 203.).

리덤링³⁾이 달려있었고, ‘성전환’, ‘다이크’, ‘네 트랜스혐오는 좇까라 그래’라고 적힌 퀴어 네이션⁴⁾ 풍의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독백

성전환자의 몸은 부자연스러운 몸이다. 이는 의학의 창조물이다. 이는 기술적인 건축물이다. 이는 찢어지고 태어난 것과는 다른 형태로 꿰매진 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괴물⁵⁾과 성전환자 여성으로서의 나 사이에서 깊은 관련성을 발견한다. 괴물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내 체현의 수단으로 인하여 종종 온전한 인간 이하로 받아들여진다. 괴물이 그러하듯, 인간 공동체로부터 내가 배제되는 것은 내 안에 깊고 지속적인 분노를 채운다. 나는 이 분노를 괴물과 마찬가지로, 내가 존재하기 위해 저항해야만 하는 조건들에 겨룬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성전환자의 몸에 처음으로 연결한 사람은 내가 아니다. 메리 데일리⁶⁾는 「경계 위반과 프랑켄슈타인 현상」에서 성전환성을 다루며 이 연결을 분명히 한다. 여기서 그는 성전환자들을 여성의 공간을 향한 “시간증(屍姦症)적 침범”의 행위자로 묘사하였다(69-72). 자신의 발전에 데일리가 영향을 미쳤다고 시인한 재니스 레이먼드는 “소멸하도록 도덕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성전환성의 문제에 가장 알맞을 것이다”라고 덜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그 역시 이 선언에서 괴물에 대한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감정에 공명한다. “물리가라, 이 버려지 같은 놈! 아니 그대로 있어라. 너를 짓이겨 가루로 만들어 주겠다. 널 만들어 냈다고 날 비난한다 말이지”⁷⁾(Raymond 178; Shelley 95).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프랑켄슈타인 자신의 어둡고 낭만적인 대역이며, 그가 창조하고 자신의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점을 투사하는 이질적인 타자라고 주해하는 것은 문학비평에서 상투적인 일이다. 실로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무덤에서 빠져 나와 (...) 내 자신에게서 빠져나간 흡혈귀와 악령”⁸⁾(Shelley 74)이라 칭한다. 유사한 방식으로 데일리와 레이먼드, 그리고 여타 그들의 부류가 성전환자를 자신에게서

3) (역자주) Freedom rings. 장신구 디자이너 데이비드 스페더(David Spada, 1961~1996)가 디자인해 1991년에 공개한 성소수자 상징으로, 여섯 개의 알루미늄 고리가 각각 빨강·노랑·초록·파랑·보라의 색을 담고 있다. 행복과 다양성을 상징하며, 유명 시리얼의 이름에서 딴 ‘후루츠링’(Fruit Loops)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4) (역자주) Queer Nation. 뉴욕시에서 1990년에 설립된 성소수자 활동가 조직으로, 에이즈 환자를 위한 국제 직접행동 단체인 ‘액트 업’(ACT UP)의 활동가들이 창립하였다.

5) (역자주) 이 글에서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monster와 creature를 함께 사용하나, 동시에 이 단어들은 트랜스젠더의 상황을 진단하는 비교적 일반적인 맥락에서도 사용된다. 따라서 후자의 맥락에서 사용될 때는 “괴물”, “창조물”로 번역하되, 전자의 맥락일 때는 병기하지 않고 “괴물”로 일원화한다.

6) (역자주) “메리 데일리(Mary Daly, 1928-2010)는 급진주의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이자 신학자이다. 『여성/생태학』(1978)에서 데일리는 신화를 통해 가부장제가 지속되는 방식을 분석한다.”(오드리 로드, **시스터 아웃사이드**, 주해연·박미선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2018), 92.) 스트라이커가 뒤에 다루는 「경계 침범과 프랑켄슈타인 현상」 역시 『여성/생태학』에 수록되어 있는 글이다. 로드 역시 데일리에 보내 편지에서 이 책이 흑인 여성의 이야기를 백인 여성의 연대기에 환원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성/생태학』은 내가 물려받은 유산과 유럽 외 모든 지역의 여성들이 물려받은 유산을 배제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연결점을 부정했습니다.”(같은 책, 96.)

7) (역자주)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 이미선 옮김 (서울: 황금가지, 2018), 173-174. 이 선언은 『프랑켄슈타인』에서는 같은 지면의 다른 문단에서 나타나는 두 구절을 합친 것이다. 마지막 문장은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만나고 내뱉는 두 번째 문단에, 그 앞의 구절은 첫 번째 문단에 포함된다.

8) (역자주) 위의 책, 134.

빠져나간 골렘으로 구성한다고 해도 될까?9)

괴이함의 귀속은 성전환성에 대한 레즈비언과 게이의 재현 대부분에서 뚜렷한 특징으로,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현재의 문화적 매료의 근심에 차고 두려운 내면을 불안할 정도로 상세하게 보여준다.¹⁰⁾ 다른 트랜스젠더 실천이나 정체성 중 어느 것보다도 성전환성이 개인 정체성의 정치가 달린 고정된 젠더의 기초적 전제를 와해시킬 전망을 상징하기에, 사회정의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정체성주의 운동에 쏟은 사람들은 순전한 공포에 빠져 우리에게 대한 말을 한다. 다른 소수자들에게 가해진 것이었다면, 이런 말을 찍어내는 것은 오직 가장 혐오로 가득하고 백인 우월주의적이며 기독교적인 파시스트 쓰레기 신문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게이/레즈비언 정기 간행물의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 하나에서 널리 인용하자면:

9) 이 발언은 괴물을 업신여겨 일축하려는 의도이긴 하나, 레즈비언 페미니즘 내부의 트랜스젠더 실천들과 정체성들의 상황에 관한 실질적인 논쟁을 암시한다. H. S. 루빈은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작성중인 사회학 학위 논문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 FtM 성전환자 인구의 확연한 인구통계학적 급증이 레즈비언리즘 내에서 “문화주의 페미니즘”의 지배적 우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주장한다. 문화주의 페미니즘은 동성애에서 사회에 종속적인 “성 반전”(gender inversion, 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성과학자들이 동성애를 설명한 어휘로, 지정성별의 성역할과 반대되는 선천적인 기질을 지칭한다. 트랜스젠더가 별도의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사용되었다. sexual inversion이라고도 한다. - 역자주) 모델의 낡은 개념이 보이는 실천들을 폄하하고 주변화하였으며, 특히 노동계급 레즈비언의 술집 문화와 관련된 부치-팸 역할이 그 대상이었다. 고로 문화주의 페미니즘은 지배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들에 굴복함으로써,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와 중산층에 기반한 이성애자 페미니즘의 동맹을 공고히 하였다. 첨언하자면, 레즈비언 실천의 트랜스젠더 측면에 대한 동일한 진압은 동시에 MtF 성전환자 레즈비언이라는 허깨비를 비성전환자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정체성의 안정성과 순수함에 특별한 위협으로 불러냈다. 이 논쟁의 보다 넓은 맥락을 위해서는 Echols를, 반(反)트랜스젠더 진영의 가장 악의에 찬 예시로는 레이먼드를 참고하라.

10) “트랜스젠더”라는 용어의 현재적 의미는 어느 정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 단어는 본래 복장 도착자나 성전환자로 범주화되는 것에 저항하고 이 명칭을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고자 사용한 사람들에게 의해, 1970년대에 명사로 만들어졌다. 성전환자와 다르지만 복장 도착자와 비슷하게,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외과적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출생 시에 지정받은 것과 다른 젠더에 해당하는 옷을 습관적으로 입는다. 그러나 복장 도착자와 다르지만 성전환자와 비슷하게, 트랜스젠더는 자기 젠더의 의복적인 부호화를 가끔씩 혹은 성적 만족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바꾸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특정 젠더를 표시하는 데 쓰는 시각적 재현의 전략과 같은 것을 통해, 자신이 주장한 젠더 정체성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드러낸다. 이 용어에 깔려있는 논리는 물질적인 “성별”의 사회문화적 현현으로 “젠더”를 이해하려는 널리 퍼진 경향을 반영한다. 고로 성전환자들이 체현의 육체적 변화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면, 트랜스젠더는 공적인 젠더 표현에서 신체적이지 않은 변화를 통해 그리 한다. 단, 이는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것보다는 더 복잡하다.

그러나 이 에세이는 “트랜스젠더”를 본래의 의미보다 더욱 최근의 의미로 사용한다. 즉, 나는 여기에서 이를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별/젠더 경계들을 건너가거나, 가로지르거나, 사이에서 움직이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뛰어하게 하는 모든 정체성과 실천을 지칭하는 포괄적 용어로 사용한다. 이 명칭은 성전환성, 이성애적 복장 도착, 게이 트랙, 부치 레즈비언리즘,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베르다쉬(berdache, 여러 아메리카 선주민 문화에서 기존의 성별이분법을 벗어난 의례적 역할을 맡은 인물들을 칭하던 표현. 하지만 남성 동성애 관계에서 수동적인 쪽을 지칭하던 불어 bardache와의 연관성, 서구 인류학의 식민적 명명법이라는 지적 등을 이유로 1990년 캐나다 위니펙에서 일어난 동성애자 선주민 집회에서 two-spirit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다. - 역자주)나 인도의 히즈라(hijra, 인도 아대륙에 존재하는 제 3의 성으로, 젠더와 성적 지향에 대한 어떤 서구적 분류에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 역자주) 등과 같은 비유럽적 정체성들을 포함하나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뛰어”와 같이, “트랜스젠더” 역시 동사나 형용사로 쓰일 수 있다. 이 에세이에서, 성전환성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방식으로 특수한 트랜스젠더 실천/정체성으로 고려된다. 트랜스젠더화된 주체는 이를 실행하고 체현하기 위해 특정한 호르몬적이고 외과적인 기술에 접근하고자 의료, 정신치료, 법률 기관과의 관계로 진입한다.

“저는 성전환증을 사기라고, 거기에 관여하는 이들을 (...) 변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환자는 그/그녀가 그/그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그/그녀의 몸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진정한 모습”은 드러내기 위해 다른 육체적 형상이 필요하기에, 자연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젠더를 바꿀 수 없습니다. 교묘하게 조작된 외면이 나타났을 뿐이고,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기형적 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것은 기형 이전에 거기 있던 동일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을 어그러뜨리고 불구로 만드는 사람들은 진정한 존재로부터 소외되어, 자연에 대한 기만적이고 가부장적인 접근이라는 역겨운 소극(笑劇)을 [공연]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나아가 특별히 한 사람, 성전환자 레즈비언으로 자기정의한 사람을 지명하고 계속해서 말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여성 빌딩¹¹⁾의 공개 토론회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가슴이 달리고 에스트로겐을 맞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것은 레즈비어리즘이 아니라 불구의 도착(倒錯)입니다. [이 사람은] 레즈비언 공동체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유린입니다. 그는 레즈비언이 아니고 돌연변이 남성이며, 스스로 창조한 괴물이고, 기형자이며 모욕입니다. 그는 따귀를 맞아야 합니다. 그 뒤에,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좋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¹²⁾

이런 존재들이 내가 자연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내게 말할 때, 나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인류에 대한 원한에 차 느낀 것 외에 그들(혹은 그들이 대표한다고 주장한다는 질서)에게 내 반발을 비통하게 전할 더 이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는 그들 무리의 신임을 잃은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로부터 떠나 유쾌하게 으르렁거린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에 다리를 짚 벌리고 앉은, 딜도를 찬 지옥에서 온 leatherdyke¹³⁾처럼.

이러한 경멸적 표지(標識)가 조성하는 낙인찍기는 결과가 없지 않다. 그러한 말들에는 성전환자의 삶을 파괴할 힘이 있다. 1993년 1월 5일, 시애틀 출신의 22세 수술 전¹⁴⁾ 성전환자 여성인 필리사 비스티마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수영하러 갈 수 있게 내가 해부학적으로 ‘정상’이었으면 좋겠다 (...) 하지만 안 되지, 나는 돌연변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잖아.” 두 달 뒤 필리사 비스티마는 자살하였다. 그를 그 정도의 절망으로 몰고 간 것은 시애틀의 퀴어 공동체에서 그가 겪은 배제였다. 그가 양성애자 여성으로 정체화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은 그의 성전환성 때문에 필리사의 참여를 반대하였다. 그가 자원봉

11) (역자주) The Women’s Building.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여성 주도 비영리 시민문화회관으로, 샌프란시스코 여성 센터가 1979년에 매입하여 개관하였다. 예술 및 교육을 주로 다루며, 자기결정·성평등·사회정의 등을 표방한다.

12) Mikuteit 3-4, 간결함과 명료함을 위해 아주 많이 편집되었다.

13) (역자주) leatherdyke. BDSM 실천과 연관된 여성 동성애자를 지칭한다.

14) (역자주) pre-operative. 성별 재지정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를 지칭하는 말로, 줄여서 pre-op이라고도 한다. 수술을 한 경우는 post-operative/post-op라고 하며, 수술을 원치 않는 경우 비수술(non-operative/non-op)이라고 한다.

사자로 일한 ‘레즈비언지원센터’¹⁵⁾에서는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MtF 성전환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그만두어야 할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필리사는 설문 결과를 통계화하기 위한 데이터 입력을 맡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상할 필요조차 없었다. ‘시애틀양성애자여성연맹’¹⁶⁾은 만약 성전환자들의 가입이 허가된다면, SBWN은 더 이상 여성단체가 아닐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한 회원은 양성애자 성전환자 여성의 포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내자식들은 알아서 잘 하겠지.” 필리사 비스티마는 사내자식이 아니었고, 그가 알아서 잘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죽을 때까지도 그는 자신이 회원 자격을 주장한 공동체에서 지원을 구할 수 없었다. “필리사는 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나? 왜 필리사는 자신의 민권을 요구하지 않았나?” ‘시애틀게이뉴스’¹⁷⁾의 한 칼럼니스트가 물었다. 이 경우 성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괴물을 마을의 변두리로 몰아냈을 뿐 아니라, 그가 햇불을 견디지 못했다고 나무랐다. 필리사는 자살한 것인가, 아니면 시애틀의 퀴어 공동체가 그를 죽인 것인가?¹⁸⁾

나는 다른 이를 향한 무기로 삼거나 내 자신이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내 괴물의 정체성이 가진 어두운 힘에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 나는 이를 내가 아는 바 최대한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나는 성전환자이고, 따라서 나는 괴물이다. “dyke”, “fag”, “queer”, “slut”, “whore”¹⁹⁾라는 단어들이 각각 레즈비언들과 게이 남성들, 동화주의에 반대하는 성소수자들, 성적 쾌락을 좇는 여성들, 성 산업 노동자들에 의해 탈환되었듯이, “창조물”, “괴물”, “부자연스러운” 같은 단어들 역시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에 의해 탈환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단어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심지어 겹겹이 쌓아올림으로써, 우리를 다치게 하는 그 능력을 없애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서구 문화의 지배적 전통에서 창조물은 창조된 존재이며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 인간들이 “창조물”이라고 불러 받는 모욕은 한낱 물질적 현존보다 드높은 존재, 즉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너희 지위에 이 단어가 제기하는 위협에서 기인한다. “그것”이라고 불릴 때와 마찬가지로, “창조물”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수한 인간성의 결여나 상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나는 인간이 아닌 물질적 ‘존재’와의 평등주의적 관계를 인지하는 데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모든 것은 동일한 가능성의 행렬에서 출현한다. 영단어 “monster”는 “신적인 흉조”를 뜻하는 라틴어 명사 **monstrum**에서 유래하였고, 이는 “경고하다”는 뜻의 동사 **monere**를 뿌리로 하여 형성되었다. 이 단어는 변칙적인 모양이나 구조를 가진 생명체들, 혹은 스프링크스와 같이 눈에 띄게 이상한 부위들로 구성된 우화적인 생명체들

15) (역자주) Lesbian Resource Center. 1971년 3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개원한 Gay Women’s Service Center는 동년 10월에 워싱턴주 시애틀에 개원한다. 이 시애틀 지부가 1974년에 이름을 고친 것이 ‘레즈비언지원센터’이다. 가장 오래된 레즈비언 센터로 알려져 있으나, 2010년대 초반 이후의 소식을 찾을 수 없고 홈페이지의 도메인이 2020년 6월 현재 판매중인 것으로 보아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16) (역자주) Seattle Bisexual Women’s Network(SBWN). 정확한 창립 연도는 찾을 수 없으나, 홈페이지의 소개란(www.sbwn.info/about)에서 “35년 이상”(“over 35 years”)이라고 서술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 80년대 중반부터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현재에도 활동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17) (역자주) Seattle Gay News. 시애틀의 홈페이지(www.sgn.org/)의 로고에 “경축 46주년!”(“Celebrating 46 Years!”라고 적혀 있고, 최근까지 기사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으로 보아, 1975년에 창립된 것으로 보인다.

18) 앞의 문단은 O’Hartigan and Kahler에 매우 많이 의존하고, 때론 어휘를 바꾸어 표현하였다.

19) (역자주) 스트라이커가 뒤이어 서술하듯 각각 다른 종류의 일탈적 섹슈얼리티를 지칭하는 경멸적인 표현들이다. queer를 제외한 표현은 한국에서 잘 쓰이지 않고, 유의어로 번역하더라도 모욕적인 의미를 아직 강하게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옮기지 않는다.

을 지칭하게 되었다. 고대인들이 이러한 존재들의 외양을 어떤 임박한 초자연적 사건의 징조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괴물들은 천사와 같이, 기이한 것들의 사자(使者)이자 선구자로 기능하였다. 그들은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임박한 계시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주목하라. 원대한 중요성을 띤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내게 귀기울일지어다, 동료 인간들이여. 내 욕망에 미치지 못하는 형상으로 살아온 나, 육신은 이상한 해부학적 부위들의 집합이 되어버린 나,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정상적인 몸과의 유사성을 얻게 되는 나, 내가 이리 경고하노라. 너희들이 나를 홀리는 그 ‘자연’은 거짓이다. 그것은 내가 나를 희생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특권의 근거 없음을 감추는 날조이니, 내가 대표하는 것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려고 그것을 믿지 말라. 너희는 나처럼 구성되었다. 동일한 무법의 포궁이 우리 모두를 낚았다. 내가 내 것을 대면해야 했듯이, 나는 내가 네 자연을 살피기를 청한다. 나는 내가 그리했듯 너희들도 비체화를 각오하고 변성할 것을 요구한다.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럼 너희도 자신에게서 흉터와 봉합선을 발견할지니.

비판

피터 브룩스는 그의 최근 에세이의 제목에서 던진 질문인 “(『프랑켄슈타인』에 따르면) 괴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괴물은 그 외에 무엇이건 간에 “또한 젠더 정의를 벗어나는 것인 듯하다”고 주장한다(219). 브룩스는 도를 넘은 과학자와 그의 문제적인 창조물을 다루는 셸리의 이야기를 아직 서사 형식으로서의 우세를 점하지 못한 19세기 사실주의 문학 전통의 [계몽주의 과학의 진리 주장에 대한 - 역자] 초기적인 반대 의견으로 이해한다. 그는 긴장에서 생성되는 서사 전략을 통해 『프랑켄슈타인』 본문이 설명된다고 이해한다. 이 긴장의 한편에는 시각 위주의 인식론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구술 언어성(口述 言語性, verbal linguisticality)을 특권화하는 몸의 진실을 아는 것을 향한 다른 접근이 있다(199-200). 봄으로써 앎과 말함/들음으로써 앎은 브룩스가 운용하는 비판적 틀 안에서 각각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으로 젠더화되어 있다. 이 맥락에서 고려한다면, 셸리의 저작은 계몽주의 과학의 점점 더 강렬해지는 진리 주장이 야기한 지식의 현대적 재정리로 특징지어진다(그리고 여성의 시각에서 비평한다). 괴물은 시각적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체에 부적합하다는 점에 부분적으로 기인하여 젠더를 문제화한다. 고로 괴물은 “그”라고 지칭되긴 하나, 남근화된 절시증(竊視症)에 의한 정의에 대해 여성적이고, 어쩌면 페미니즘적인 저항을 보여준다. 말하는 주체로서의 자리를 주장하고, 그림 같은 왕국에서 부정당한 바로 그 주체성을 구술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괴물은 언어를 통달함으로써 이 저항을 달성한다.²⁰⁾

그러나 언어가 트랜스젠더화된 주체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움직임을 언어적 구조 안의 안정적으로 젠더화된 위치 사이에서 재현할 수 없기에, 성전환자의 괴이함과 그 정동인 트랜스젠더 분노는 참으로 공고한 저항의 수단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의 상황은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마주한 것을 효과적으로 뒤집는다. 괴물과 달리, 우리는 젠더화된 체현에 관한 문화의 시각적인 규범을 성공적으로 인용하곤 한다. 이 인용은 언어의 잠정적인 사용을 통해, 우리가

20) 젠더의 구성에 있어서 계몽주의가 미친 영향에 관한 간명한 논의로는 Laqueur 1-7을 보라. 브룩스가 반응한 『프랑켄슈타인』의 페미니즘적 해석은 Gilbert and Gubar, Jacobus, and Homans를 포함한다.

어찌됐든 차지할 주체의 위치에 관한 우리 주장의 부자연스러움을 구술적으로 선포할 때, 체제 전복적인 저항이 된다.²¹⁾

자신만의 삶과 의지가 있는 괴물의 가능성은 프랑켄슈타인에게 공포의 주요 원천이다. 이 과학자는 구체적인 목표, 즉 그의 힘 아래 자연을 완전히 복속시키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의 열망을 성취할 수단을 근대 과학에서 찾는다. 프랑켄슈타인의 눈에 그 추종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새롭고 거의 무한한 힘을 습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천둥을 지배할 수 있고 지진을 모방하며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그림자로 흉내내기까지 합니다. (...) 나는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이루리라! (...)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미지의 힘을 탐험하며 세상에 가장 깊은 창조의 신비를 펼쳐 보이리라.”²²⁾(Shelley 47) 그러나 그 노력의 결실은 프랑켄슈타인이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창조물이 각성할 때 그가 느끼리라 여겼던 환희는 두려움으로 즉각 바뀌었다. “피조물이 멍한, 누런 눈을 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²³⁾ (...) 입을 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몇 마디 웅얼거렸습니다. 그가 싱긋 웃자 뺨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가 무슨 말인가 하는 듯 했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나를 붙잡기라도 하려는 듯 그가 한 손을 뺐었지만 나는 그것을 피해(...)”²⁴⁾(Shelley 56, 57). 괴물 또한 탈출하여 자신의 창조자와 수년간 결별한다. 그 사이 괴물은 세상 속 자신의 상황을 약간 알게 되고, 자신의 창조자를 찬미하는 대신 저주한다. 메리 셸리의 과학자가 스스로에게 내린 임무의 전적인 성공은 따라서 그 무용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새로이 활기를 띤 괴물의 몸은 물질성에 대한 프랑켄슈타인의 권능을 실증하는 대신, 창조자가 추구하던 지배가 실패했음을 입증한다.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만드는 괴물의 정신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괴물은 창조자의 목적을 넘어서고 논박한다.

성전환자로서 내 경험은 이런 측면에서 괴물의 것과 상응한다. 괴물의 정신이 프랑켄슈타인의 창조물이 아니듯, 성전환자의 몸이 빚어낸 의식은 그 살을 다시금 조형한 과학의 창조물이 이제 아니다. 호르몬 및 수술에 의한 성별 재지정 기술을 생산한 의제는 프랑켄슈타인의 것보다 더 가식적이지도, 더 고결하지도 않다. 영웅적인 의사들은 아직도 자연을 극복하려 노력한다. 성별 재지정 기술을 생산한 과학적 담론은 몸의 완성을 통한 불멸의 추구, 절대적 한계의 초월을 통한 전적인 숙달의 환상, 생명 그 자체를 만들어내려는 오만한 열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²⁵⁾ 그 계보는 근대 과학보다 오래된 형이상학적 탐구에서 오며, 그 문화 정치는 자연화된 이성애 질서에 복무하는 젠더화된 정체성을 안정화하려는 심히 보수적인 시도와 제휴한다.

21) 공개적인 성전환자의 발화는 “아름다운 ‘괴물’, 혹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이었다면 괴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Bloom, 218의 언급 뒤에 있는 논리를 유사한 방식으로 전복한다.

22) (역자주) 메리 셸리, 앞의 책, 83-84.

23) (역자주) 위의 책, 99.

24) (역자주) 위의 책, 101.

25) Billings and Urban, 269는 몸에 관한 기술적 숙달의 하나로 성전환 수술을 대하는 의료적 태도를 각별히 잘 기록하고 있다. Irvine, 259는 체계적인 성과학의 발전에 성전환성이 어떻게 들어맞게 되는지를 제시하나, 해당 장에서 제시하는 성전환자의 경험 설명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Meyer는 극단적으로 트랜스혐오적인 결론을 내리나,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의료화에 관한 좋은 해석을 제공한다. 성별 재지정 기술 배후의 과학적 의제에 관한 성전환자의 시각을 보려면, 스톤을, 특히 “후기 자본주의 문화의 모든 현실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이미지가 되기를 갈망한다”라고 제목을 단 단락을 참고하라(280-304).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의학적으로 구축된 성전환자의 몸이 실현 가능한 주체성의 장이 되는 것을 가로막지 못한다. 성전환적 체현 수단을 야기한 그 의제로 인해 구현된 주체들의 순종을 보장하지도 못한다. 우리가 우리 부활의 수술대에서 일어나면서, 우리 성전환자들은 우리의 창조자들이 우리에게 관해 의도한 것에 비해 더한 것, 다른 것이 된다. 성별 재지정의 의료 기술이 시각적이고 형태학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몸들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 기준의 영향으로 자연스러움이 생산된다고 해도, 그 기술과 맞물림으로써 생물 의학 기술이 성취할 수 있는 자연주의적 효과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주체적인 경험이 형성된다. 성전환적 체현은 괴물의 체현과 마찬가지로 그 주체를 ‘자연’과 동화될 수 없고, 적대적이며, 귀여한 관계에 놓는다. 이 ‘자연’에서 괴물은 어찌됐든 존재해선 안 된다.

셸리의 소설에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자연계 내에서 자신이 처한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1930년대에 제임스 웨일의 고전 영화²⁶⁾에서 보리스 칼로프가 연기한 것에만 익숙한 이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교양 있게 전달한다. 영화평론가 비토 루소는 감독이 프랑켄슈타인 영화들을 촬영할 당시 벽장 속²⁷⁾의 게이 남성이었다는 사실이 웨일의 괴물 해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그의 괴물에 부여한 애수는 자신의 감추어진 성적 정체성의 경험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²⁸⁾ 세상의 눈에는 괴이하고 부자연스럽지만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랑과 인간 사회의 승인을 추구하는 웨일의 괴물은 벽장 속에 있는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악몽 같은 고독과 고립을 표면화하고 시각적으로 묘사한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성전환적 존재로서의 내 상황을 내게 강력히 전하는 괴물은 이게 아니다. 대신 나는 영리하고 기민하며 강하고 유창한, 메리 셸리 문학의 괴물을 모방한다.

소설에서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의 연구실에서 달아나 알프스 산맥의 고독에 숨는다. 여기서 괴물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몰래 관찰하여, 언어, 문학, 그리고 유럽 사회의 관습에 관한 지식을 점차 익히게 된다. 괴물은 처음에 자신의 상황을 잘 모른다. “나와 비슷하게 생겼거나 나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존재를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²⁹⁾ 괴물은 적는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솟구쳤지만 풀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³⁰⁾(Shelley 116, 130). 그리고 연구실에서 빠져나올 때 챙긴 외투의 주머니에서, 괴물은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일지를 찾아 자신의 창조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된다. “글을 읽으면서 구역질이 날 정도였

26) (역자주) 제임스 웨일(James Whale, 1889-1957)은 할리우드에서 호러 영화를 연출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가운데 대표작으로 꼽히는 것이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1931)과 [프랑켄슈타인 2 - 프랑켄슈타인의 신부](Bride of Frankenstein, 1935)이다. 여기서 괴물 역을 맡은 배우는 보리스 칼로프(Boris Karloff)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윌리엄 헨리 프랫(William Henry Pratt, 1887-1969)으로, 이후 다른 감독이 연출한 [프랑켄슈타인 3 - 프랑켄슈타인의 아들](Son of Frankenstein, 1939)에서도 괴물 역을 맡는다.

27) (역자주) closet, closeted 등의 표현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들과 그 상태를 지칭하는데, 여기서는 “벽장 속”이라는 표현과 그 응용으로 번역한다.

28) Russo 49-50: “[프랑켄슈타인](1931)과 [프랑켄슈타인 2 - 프랑켄슈타인의 신부](1935)의 동성애적 유사성은 게이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던 방식과 동일하게 두 영화에서 괴물을 반사회적 인물로 바라본 시각에서 나타난다. 두 영화 모두, 감독 제임스 웨일의 동성애 지향이 그 시각의 원동력이었을 수 있다.”

29) (역자주) 메리 셸리, 앞의 책, 211.

30) (역자주) 위의 책, 224.

오니까요.”³¹⁾ 괴물은 말한다. “지식이 늘어나자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버림받은 존재인가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³²⁾(Shelley 124, 125)

자신의 역사를 알게 되고 교제를 위해 손을 내민 모든 이들에게 거부당하고 나자, 괴물의 삶은 어두운 전환을 맞는다. “분노와 복수심만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³³⁾ 괴물은 선언한다. “나는 사탄처럼 마음속에 지옥을 품고 있었습니다.”³⁴⁾(130). ‘자연’ 전체를 파괴하는 것도 행복하겠지만, 괴물은 마침내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체계적으로 살해하는 더 편리한 계획에 만족한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이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가 저버린 창조물에게 있음을 깨달자, 프랑켄슈타인은 회한에 차 자신의 고향 제네바 위의 산골 마을에 칩거해 괴물이 저지른 범죄에 자신이 공모한 바를 곰곰이 생각한다. 샤모니 마을 위 몽블랑 산의 그림자에 있는 빙하를 거닐 때, 프랑켄슈타인은 얼음 사이로 익숙한 형체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엿본다. 물론 이는 창조자에게 접견을 요구하는 괴물이다. 프랑켄슈타인은 응하고, 둘은 산사람의 오두막으로 물러난다. 거기서 괴물은 소설의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는 독백으로 프랑켄슈타인에게 자신의 창조 이야기를 자신의 처지에서 말하고, 자신이 이렇게 격분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는 샤모니 마을 위에서, 빅터 프랑켄슈타인에게 전하는 내 말이다. 괴물과 마찬가지로, 나도 내 가장 이른 기억과 내가 어쩌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과 다른 점을 알게 되었는지를 말할 수도 있다. 내가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내 일부를 명명하기 위해 “성전환자”라는 꼬리표를 받아들임으로써 괴이한 정체성을 얻게 된 이야기를 묘사할 수도 있다. 나 또한 내 몸을 만들고, 나 같은 창조물들의 몸을 1930년대부터 만들어 온 남자들의 일지를 찾아냈다. 나는 트랜스젠더화된 주체성의 실행에 관한 이런 의료적 개입의 역사를 아주 세세한 것까지 안다. 과학은 젠더의 강제성에 대한 특수한 트랜스젠더 저항 전략, 즉 성기의 육체적인 개조에 의해 제기되는 급진적인 위협을 통제하고 식민화하고자 한다.³⁵⁾ 나는 내 정체성을 정서 장애로 정의한 의학의 결과와 함께 매일을 산다. 이 공식적 병리화의 여과를 거쳐,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병든 정신의 혼란스러운 고통이라고 즉각적으로 묵살될 수 있다.

괴물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러한 조건 안에서 살수록 나는 더 많은 분노를 품는다. 분노는 내 피부의 모공을 뚫고 색을 찌러 넣어, 그게 내 요동치는 심장에 흐르는 피가 될 때까지 물들인다. 이는 내 생존에 불리한 외부 상황에서 존재하는 것이 불가피한 데서 자라나는 분노다. 하지만 내 안의 분노는 이것 말고도 아직 하나 더 있다.

31) (역자주) 위의 책, 227.

32) (역자주) 위의 책, 229.

33) (역자주) 위의 책, 237.

34) (역자주) 위의 책, 238.

35) 성전환성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비판적 역사가 부재하기에, 표준적 의학 기록에 의존하는 게 최선이다. 특히 Benjamin, Green and Money, 그리고 Stoller를 참고하라. 성별/젠더의 제도화에 관한 여러 문화의 차이의 개괄은, Williams, “Social Constructions/Essential Characters: A Cross-Cultural Viewpoint,” 252-76와 Shapiro 262-68을 참고하라. 성기의 외과적 개조를 이용하는 트랜스젠더 실천의 특정한 제도화에 관한 기록은 Nanda와 Roscoe를 참고하라. 현대의 비-성전환적 성기 개조 실천에 호기심이 있는 모험적 독자들은 E.N.I.G.M.A. (Erotic Neoprimitive International Genital Modification Association, 성애적 신원시(新元始) 국제 성기 변형 협회), 엽서주소 LaFarge-werks, 2329 N. Leavitt, Chicago, IL 60647에 연락할 수도 있다.

일지 (1993년 2월 18일)

김은 등을 돌린 채 꼬리뼈를 탁자 모서리에 올려, 내 벌린 다리 사이에 앉았다. 그의 왼손은 내 허벅지를 매우 세게 쥐어, 멍은 한 주가 지나고도 아직 남아 있다. 땀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며, 그는 마지막으로 힘을 주었고 아이가 태어났다. 내 연인의 등을 통해, 내 배의 피부 가까이에서, 나는 아이가 움직여 다른 여성의 몸에서 나와 이 세상으로 들어선 것을 느꼈다. 낯선 사람들의 손이 기도에서 끈적한 녹색 태변을 빨아내고자 아이를 낚아챘다. “여자아이야” 누군가 말했다. 아마 풀이리라. 왜 어둡고 원치 않은 감정 덩어리가 그 즉시 내 정신의 조용한 뒤편에서 말없이 떠올랐을까? 이 기적의 순간은 그런 것을 대할 때가 아니었다. 나는 그것들이 오래 피하기에는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면서, 미루어 두었다.

사흘 만에 우리는 완전히 지쳐버렸고, 합병증 탓에 집에서 낳는 대신 카이저³⁶⁾에 가야해서 조금 실망했다. 나는 우리의 작은 패거리가 분만실 가득 무리지어 있는 것을 보고 병원 직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산파 스테파니, 아이의 아버지 폴, 김의 자매 그웬, 내 아들 윌슨과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성하는 다른 두 여성인 앤과 헤더. 그리고 물론 김과 아이. 김은 아이의 이름을 알래스카의 산에서 따 데날리라고 지었다.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고 여기는지 의료계 양반들이 전혀 모른다고 생각한다. 진통이 처음 시작되자 우리는 다양한 보조 역할을 돌아가며 했으나, 어느 정도 지나자 더 안정적인 방식이 자리 잡았다. 나는 출산 코치 노트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진통이 묶음으로도 몇 다스가 지나자, 나는 모든 것을 김에게 집중해, 이 가차 없는 과정에 몰두하는 동안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왔다. 김이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몸에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그와 나의 눈을 마주하고, 매 숨을 그와 함께 쉬며, 동반자가 되었다. 나는 김의 딸의 출생을 둘러싼 의식(意識)의 의례적인 변화에서, 점점 긴밀해지는 매 순간에 참여하였다. 출생 의례는 신체적인 만큼 심령적인, 공고한 개막식에 맞춰 자신을 준비시키는 기능을 한다. 김의 몸은 이 의례 과정을 그를 위한 본능적이고 카타르시스적인 극적 해소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내 몸은 나를 기다리게만 하였다. 나는 여정을 떠나 내 동반자가 홀로 가야 할 지점에 이르렀고,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여행을 마무리 지어야 했다. 내가 참여한 출생 의례를 끝내기 위해, 나는 인생 전체만큼이나 공고한 내 안의 무언가를 옮겨 내야 했다.

나는 떠나보낼 수 없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병원에서 집으로 등등 떠내려왔다. 나는 홀로 있게 될 때까지 빈둥거렸다. 내 전처가 윌슨을 데리러 왔고, 김과 데날리는 아직 폴과 병원에 있고, 스테파니는 갔으며, 나머지는 절실했던 산책을 하러 나갔다. 마침내 내 집의 고독 안에서, 나는 젖은 종이봉투처럼 조각조각으로 터져, 내 얼굴 위를 체처럼 덮은 내 손을 거쳐 내 삶의 감정적 내용물을 흘렸다. 내가 파트너의 여정에 함께했던 며칠간, 나는 꾸준히 나를 열어젖히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놓아줄 준비를 했다. 이제 내 안의 모든 것은 안에서 올라와 목으로, 입으로 흘러나왔다. 이것들은 내 보지³⁷⁾의 주름 사이를 절대 지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앞서 엮은 어둠이 다시 떠오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다시 움트기 전에 겪어야 할 감정의 대양(大洋)이 있었다.

36) (역자주) Kaiser Permanente(1945-)는 미국 최대의 통합 의료 그룹이다.

37) (역자주) 스트라이커는 여기서 음순을 일컫는 비속어인 “cunt”를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새로운 생명을 마주한 단순한 기쁨이 방울져, 거둬 파도쳤다. 나는 믿을 수 없이 행복했다. 나는 김을 정말 사랑했고, 김의 힘과 용기에 크게 감탄하였다. 나는 우리가 일손, 앤, 헤더, 데날리, 그리고 이어질 다들 아이들과 함께 만든 귀여운 가족에 자긍심과 흥분을 느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마땅한 이름을 떠올릴 수 없는, 보살핌으로 가득하고 끈끈한 유대감과 공동생활에서 상쾌한 가능성을 맛보았다. 우리는 반대 경계를 개척하는 것, 이성애주의³⁸⁾로부터 생물학적 재생산을 탈환하여 우리의 목적에 맞게 해방시키고자 문명의 종핵을 모험하는 것에 관해 농담하였다. 우리는 맹렬했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의 세계에서, 우리는 그래야만 했다.

그러나 아직도 가끔 나는 오래되고, 더 친숙한 방법의 소멸을 애도한다. 내 전처와 내가, 여자와 남자가 혼인관계였던 적은 오래지 않다. 그 사랑은 진실했고, 그 상실의 비통함은 진짜였다. 나는 언제나 남성보다 여성과 친밀감을 갖는 것을 원했고, 그 소망은 내게 언제나 귀여우게 느껴졌다. 전처는 그게 이성애적으로 보여야만 했다. 내 삶의 모양은 내 갈망으로부터 나를 떼어놓는 방벽이었다. 입 없는 몸처럼, 나는 풍요 속에서 굶주리고 있었다. 깊은 유대감을 위해 자신을 열어놓는 데 내가 실제로 가진 가장 깊은 유대를 끊어내야 할지언정, 나는 굶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삶을 버렸고 이 새것을 지었다. 전처와 내가 우리 사이의 수많은 갈등 끝에 다시 잘 지낸다는 사실은 우리 결별의 쓰라림을 다소 달게 한다. 이 출생의 날에, 이 과거의 상실은 그 부분적 회복 가운데서도 존재했다. 상실은 내 삶의 새로 찾은 충만함 곁에 자리 잡고, 나를 짓누르는 통렬하고 희망찬 슬픔을 상기시켰다.

막대한 좌절감과 분노가 곧 솟아났다. 내가 이룬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내 정체성은 아직 보잘것없게 느껴졌다. 삶의 모든 상황이 나에게 대한 하나의 막대하고 혼합된 무효화와 소거의 행위를 공모하는 듯 보였다. 내가 태어난 몸에서, 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한 사람으로서 비가시적이었다. 나는 내 몸의 형상이 내 욕구를 이성애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한 귀여워서 비가시적이었다. 이제, 나는 다이크로서 여성 사이에서 비가시적이다. 성전환자로서, 나는 다이크 사이에서 비가시적이다. 새로운 어머니의 파트너로서, 나는 종종 성전환자로서, 여성으로서, 레즈비언으로서 나는 지난 아홉 달 사이 내가 아이의 아버지인지 물어본 친구와 지인들과 연락이 끊어졌다. 내가 내 몸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들이 그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매우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내가 성취한 자기표현, 그 어떤 가시적이고 지성적인 것도, 지속적인 비가시성의 경험을 견뎌내기 미칠 듯이 어렵게 하여, 그 비싼 값을 치렀다.

자연화된 질서의 축적된 가정은 곧 나를 짓눌렀다. 자연은 이러한 패권적 억압을 행사했다. 갑자기 나는 방향과 두려움, 외로움과 혼란에 빠졌다. 어떻게 나는 오클라호마의 모르몬교도 소년으로 자라다, 버클리 박사학위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성전환자 레더다이크가 되었는가? 이 길고 기이한 여정에서 제정신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같아 보였다. 고향은 내 뒤로 멀리 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고, 쉼 곳은 없었다. 강한 감정에 두들겨 맞아 조금 멍해진

38) (역자주) heterosexism.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오로지 이성애만이 옳다고 여기는 태도. 따라서 이성애적이지 않은 행동이나 정체성·교제·커뮤니티 등을 부정하며 모욕하고 낙인찍는 이데올로기적인 구조를 가진다.” (정민, “한국성적소수자사전 - 이성애주의(heterosexism)”,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검색 2020.7.26.], 인터넷주소: http://ksarc.org/xe/board_yXmx36/4772.)

채, 나는 나를 지키는 내벽이 녹아내려 나를 다치게 할 모든 것에 내가 무방비하게 되었음을 느꼈다. 나는 울었고, 젠더가 내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비체적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모든 게 상상 이상으로 좇됐다. 계속할 수 없이 너무도 아프다. 말 그대로, 나는 오늘 아이를 낳는 것에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가까이 갔다. 내 몸은 그걸 할 수 없다. 나는 상처 하나 없이 피를 흘릴 수조차 없으나, 그럼에도 나는 여자라 주장한다. 어떻게? 왜 나는 항상 그리 느꼈는가? 나는 정말 빌어먹을 괴물이다. 나는 다른 여자 같은 여자가 절대 될 수 없을 것이나, 절대 남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내 자리는 정말 없을 것이다. 나는 이 끝없는 운동에 정말 지쳤다. 나는 자연과 전쟁을 벌인다. 나는 '존재'로부터 소외되었다. 나는 괴물 같은 살에 갇힌, 자해하는 기형자, 변태, 돌연변이이다. 맏소사, 나는 절대 또 갇히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날 망쳐버렸다. 나는 내가 허물어지는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

나는 내 꿈의 세계로 들어선다. 나는 물속에서 위로 헤엄친다. 어둡다. 내 위로 일렁이는 빛이 보인다. 나는 폐가 터질 듯이 수면을 헤쳐 뚫는다. 나는 공기를 빨아들이려 하고, 또 물을 마주할 뿐이다. 내 허파는 물로 가득 찼다. 나는 안팎으로 물에 둘러싸였다. 나와 내가 처한 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왜 나는 아직 죽지 않았나? 내 위로는 또 하나 표면이 있고, 나는 미친 듯이 그리로 헤엄친다. 일렁이는 빛이 보인다. 나는 수면을 거둡거둡, 거둡해서 헤쳐 뚫는다. 이 물이 나를 말살한다. 나는 존재할 수 없으나, 지극히 고통스러운 불가능성으로서 존재한다. 나는 여기 있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이다.

나는 영원히 헤엄칠 것이다.
나는 영원히 죽을 것이다.
나는 물로 숨 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나는 물이 될 것이다.
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나를 바꿀 것이다.

이 마법 같은 변화의 현장에서
나는 나를 다시금 인식한다.

나는 근거도 한계도 없는 움직임이다.
나는 맹렬한 흐름이다.
나는 어둠과 축축함과 하나된다.

그리고 나는 격분한다.

여기 마침내 내가 붙든 혼돈이 있다.
여기 마침내 내 힘이 있다.
나는 물이 아니라
나는 물걸이요,
분노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분노는
그 유체 매질(流體媒質)로서
내 몸을 내게 돌려준다.

분노는
물에 구멍을 내고
나는 그 곁에서 합쳐져
흐름이 나를 지나게 둔다.

분노는
내 원시적 형상을 구성한다.
분노는 내 머리를 젖히고
내 이빨 위로 입술을 끌어당기며
발뒤꿈치로 서 울부짖게 한다.
그리고 어떤 소리도
내 분노의 순도를
흐리게 하지 못한다.

어떤 소리도
이 언어 없는 곳에
없고
내 분노는 고요한 광란이다.

분노는
이 밋밋한 현실로
이 변모한 살로
마침내 나를 내던져
내 '존재'의 힘과 날 나란히 한다.

내 분노를 낳으며,
내 분노는 나를 다시 낳았다.

이론

내가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정동, 내가 “트랜스젠더 분노”라고 명명한 것은 두서없는 실천의 간극, 그리고 일반적인 범주의 붕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형상의 괴리는 지금 각별히 적절해 보인다. 분노는 언어와 물질성 사이의 불안정하나 불가분한 관계가 통치하는 장 안의 주체의 상황, 언어가 명확한 재현을 피하는 동시에 상징적인 용어를 통한 영속적인 재구술(再口述)을 요구하는 의미 문제로 끌어들이고 체계화하는 상황에 의해 생성된다. 주체는 이 역동적

장 안에서 경계 자체가 형성한 경계를 항시 단속해야 한다. 본질적인 불안정이 주체 경계의 파열을 표준적 기능의 한 가지로 생산하는 의미/물질화 체제에 대항하여, “안”과 “밖”이라는 허구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내가 정의하려는 분노의 정동은 주체성의 주변부와 의미의 경계에 있다. 이는 상징적 질서 내 주체적 공간의 폐제³⁹⁾를 끊임없이 위반하는 물질성의 “외부성”이 주체의 몸의 물질화와 신체적 자아의 형성의 기반으로 필연적으로 주체의 “안”에도 있다는 사실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 일차적 분노는 젠더화된 체현의 규범을 충족시키는 데 실패하여 주체를 폐제하지 못할 때 명확하게 트랜스젠더 분노가 된다. 트랜스젠더 분노는 주디스 버틀러가 몸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고도로 젠더화된 규제 스키마타(schemata)라고 언급한 것을 벗어날 것을 강요당하는, 그 생존 불가능성이 정당한 주체성의 세계를 망라하고 구성하는 “비체화된 몸의 영역, 기형의 장”에 들어갈 것을 강요당하는 주체적 경험이다(16). 트랜스젠더 분노는 주체로 존재하는 것의 유일하게 가능한 기반으로 스스로를 유지하려는 자연화된 존재 질서에서, 자신을 배제를 촉발하는 실천의 집합을 익히는 것이 주체로서 자신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건이라는 점에 대한 감정적 반응, 귀어한 분노이다. 그러나 젠더화된 정체성을 동원하고 이를 전략적 발전과 점유가 가능하고 임시적인 것으로 함으로써, 이 분노는 인식 가능성의 다양한 규정으로 조절되는 새로운 양태를 통해 주체의 수립을 가능케 한다. 트랜스젠더 분노는 강제적으로 지정된 주체 위치에 대한 탈동일시의 수단을 제공한다. 이는 외부의 힘을 내부적 욕동으로, 혹은 그 역으로 주체를 완전히 폐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이용함으로써, 하나의 젠더화된 주체 위치로부터 다른 것으로의 이행을 가능케 한다. 분노의 운용을 통해, 낙인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원천이 된다.⁴⁰⁾

나는 텍스트의 이 특정한 부분에서 잠시 멈춰 이론화하고자 한다. 내 연인의 딸이 태어난 여파로 비체화 상태에서 내던져진 삶의 순간에서, 나는 즉시 내 경험을 설명할 이야기를 중얼거렸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받은 교육으로 마음껏 쓸 수 있는 개념적 도구를 모두 사용하여 이론화하기 시작했다. 그 일[데날리의 출생 - 역자]에 관한 다른 실화들도 분명 말할 수 있겠으나, 나는 병원 분만실에서 내 분노의 불씨를 당긴 것이 무엇인지 돌아오자마자 정확히 알았다. 아기의 젠더 지정⁴¹⁾에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였다. 보다시피, 나는 셔츠 소매로 얼굴에서 콧물을 닦아내며, 몸은 문화적·역사적으로 특정한 양태를 통해서만 의미 있게 만들어진다고 중얼댔다. 이 양태는 살을 유용한 인공물로 변환하는, 몸의 물질성을 파악한다. 젠더 지정은 이 변환의 초기 단계로, 우리가 이성애 경제의 교환 체계에 끼워 맞춰지는 수단에 의한 정체성 형성의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 권위는 살의 특정한 물질적 특성, 특히 성기를 미래의 재

39) (역자주) foreclosure, 廢除. “정신병에 대한 라캉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신병은 ‘아버지의 이름’(부명)이 ‘폐제’(foreclosure, 廢除)된 상태이다. 여기서 폐제란 법률용어로서 저당물의 반환권 상실을 의미한다. 이 용어에 대한 일본어 번역어는 ‘배제’(排除)이다. 결국 정신병 환자에겐 아버지의 이름이 폐지되고 제거되었다는 것이다.”(문장수, 「인간 범주에 대한 라캉의 구조적 정의에 대한 비판」, 『철학논총』 71 (2013): 49.) 즉, 라캉의 ‘폐제’ 개념은 법률 용어인 ‘유질 처분’에서 뿌리를 두지만, 더 보편적인 ‘폐지와 배제’의 뜻을 담는다. 스트라이커의 어휘도 이에 가깝다고 여겨 ‘폐제’로 옮긴다.

40) Butler, “Introduction,” 4 및 기타 참조.

41) (역자주) 원문은 “gendering”이라는 한 단어로, 위키낱말사전(en.wiktionary.org/wiki/gendering)은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 젠더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렉시코닷컴(www.lexico.com/definition/gendering)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하나의 젠더를 배정하거나 귀속하는 것; 젠더에 따른 분할, 분류, 차별”이라고 정의한다.

생산 가능성의 외부적 표시로 포착하고, 이 살을 표지로 구성하여, 몸을 문화화하기 위해 이 표지를 읽는다. 젠더 귀속은 강제적이다. 이는 우리의 몸을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부호화하고 배치하나, 우리는 우리의 표식이나 표식이 지니는 의미를 선택할 수 없다.⁴²⁾ 이는 분만실에서 나온 짧은 문장, “여자아이야”의 시작과 끝 사이에서 성취되는 행위였다. 이는 나 자신이 젠더와 별인 투쟁의 비통함을 전부 상기시킨 행위였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합의 없는 젠더 지정에 내가 가담할 것을 명령한 행위이다. 젠더 지정 폭력은 인간 주체성의 형성 조건이다. 젠더를 갖는 것은 한 명의 인간성을 인식 가능한 것으로 하는 부족 문신이다. 나는 두 가지 훼손, 즉 젠더의 표식과 그 부재의 살아남을 수 없음에서 오는 고통 사이에서 잠시 서있었다. 나는 어느 쪽이 더 나쁜지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내가 느끼기에 어느 쪽을 견뎌 내는 게 가장 나을지 말할 수 있을 뿐인가?

‘아버지의 규율’의 존재 앞에 굴복하고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게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낳지 않는단 말인가? 이 경우 아버지가 dyke 친구의 임신을 도운 피어싱과 문신을 한, 보라색 머리의 핑크 fag 아나키스트인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특정한 화자가 아닌 남근이성중심적 언어는 우리의 살을 규정하는 메스다. 나는 그 ‘규율’에 저항하여, 내 젠더에 대해 그것이 내린 최초의 판결에 따를 것을 거부한다. 나는 그 권력을 벗어날 수는 없으나, 그 매체 사이를 움직일 수 있으리라. 만약 내가 충분히 맹렬하게 움직인다면, 내 분노의 흔적을 남기는 김에 이를 불구로 만들 수 있으리라. 나는 나를 다시 명명하려는 복수심과 함께 이를 받아들이고, 내 성전환성을 선포하여, 내 또렷한 재기입(再記入)의 수단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내가 직접 바늘을 쥐진 못할지라도, 나는 내 깊고 자족적인 쾌락을 위해 그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으리라.

성전환자의 몸을 접함, 트랜스젠더화된 의식이 자신을 또렷이 표현함이란 자연 질서의 인공성에 관한 계시를 무릅쓰는 것이다. 이 인공성의 함축을 대면하는 것은 자연스러움의 환상을 유지하는 젠더 지정 절차가 가한 훼손, 손실, 분리를 모두 소환하는 것이다. 내 성전환자 몸은 이 추상적인 폭력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 이 불안한 소식을 전하는 이로서 우리 성전환자는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곧잘 번민하나, 우리에게 향해진 다른 이들의 분노를 기꺼이 참지는 않는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저 괴물들에게 귀기울이기만 하면, 우리는 따로 할 말이 있다. 의미 있는 행위주체성과 행위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설령 모든 살의 보편적이고 문화적인 강간을 배양하는 지배의 장 안이라도 말이다. 그러나 이 과업을 맡으면 당신이 그 과정에서 다시 만들어지리라는 점을 주의하라.

내 개인적인 목소리를 통해 하나의 괴물로서 말함으로써, 낭만주의의 어둡고 축축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간혹 그 음울한 억양과 거창한 태도에 빠짐으로써, 나는 메리 셸리가 자신의 과학자가 만든 창조물에게 연민을 끌어내기 위해 사용한 것과 같은 문학적 기교를 이용한다. 괴물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 괴물성에 의해 마주해야만 하는 조건을 무릅쓰고 괴물로서 내 가치를 주장하며, 살 가치가 있는 삶을 다시 규정한다. 나는 셸리가 자신의 소설의 제명(題名)에서

42) 학계의 상당수가 이러한 관측을 제시한다. 게일 루빈은 성의 정치경제뿐 아니라 젠더화된 주체성에 관해서도 생산적인 시발점을 제공한다. 젠더 모집과 귀속에 관해서는 Kessler and McKenna를 참조할 것. 공유한다고 추정되는 물질적 유사성에 기초한 사회학적 집단들을 자연화하는 표식들의 체계로서의 젠더에 있어, 나는 인종에 관한 Guillaumin의 일부 발상과 비티그에게 영향을 받았다.

제기하는 밀턴의 질문을 던졌다. “창조주시여, 흠을 가지고 저를 인간으로 지어 달라 부탁드립니다습니까? 저를 암흑으로부터 끌어내어 달라 청했습니까?”⁴³⁾ 한목소리로, 셸리의 괴물과 나는 우리의 품위를 잃지 않고 “아니다”라고 답한다. 우리는 자연 질서에 반하여, 우리의 말로 우리를 구성하는 노력을 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스러움의 특권을 포기하였으나, 자연이 넘쳐흘러 나온 혼돈과 암흑과 대신 연합하기에 그만두지 않는다.⁴⁴⁾

만약 이 길이 내 길인 것처럼 당신의 길이라면, 이 괴이한 축복에서 당신이 찾을 수 있는 위안이 무엇이든 내가 전하도록 하겠다. 당신 안 어둠의 생기 넘치는 힘을 당신이 찾기를. 그 게 당신의 분노를 길러 내길. 당신의 분노가 당신의 행동을 채우고, 당신이 당신의 세계를 바꾸려 투쟁할 때 당신을 바꾸길.

참고문헌

- ❖ Benjamin, Harry. *The Transsexual Phenomenon*. New York: Julian, 1966.
- ❖ Billings, Dwight B., and Thomas Urban. “The Socio-Medical Construction of Transsexualism: An Interpretation and Critique.” *Social Problems* 29 (1981): 266-82.
- ❖ Bloom, Harold. “Afterword.”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New York: Signet/NAL, 1965. 212-23. Orig. pub. “*Frankenstein, or The New Prometheus*.” *Partisan Review* 32 (1965): 611-18.
- ❖ Brooks, Peter. *Body Work: Objects of Desire in Modern Narrative*. Cambridge, MA: Harvard UP, 1993.
- ❖ Butler, Judith.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Routledge, 1993. (쥬디스 버틀러,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성”의 담론적 한계들에 대하여』, 김윤상 옮김, 고양: 인간사랑, 2003.)
- ❖ Daly, Mary. *Gyn/Ecology: The Metaethics of Radical Feminism*. Boston: Beacon, 1978.
- ❖ Echols, Alice. *Daring to Be Bad: Radical Feminism in America, 1967-1975*.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9. (앨리스 에콜스. 『나쁜 여자 전성시대: 급진 페미니즘의 오래된 현재, 1967~1975』. 유강은 옮김·엄혜진 해설. 서울: 이매진, 2017.)
- ❖ Gilbert, Sandra, and Susan Gubar. “Horror’s Twin: Mary Shelley’s Monstrous Eve.” *The Madwoman in the Attic*. New Haven: Yale UP, 1979. 213-47. (산드라 길버트·수전 구바. 「공포의 쌍둥이 - 메리 셸리의 괴물 같은 이브」, 『다락방의 미친 여자: 19세기 여성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 박오복 옮김. 서울: 이후, 2009, 387~441.)

43) (역자주)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이나경 옮김 (파주: 아르테, 2020), 5. 존 밀턴, 『실낙원』의 “창조주여, 흠으로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달라고 내가 간청하더이까? 어둠에서 나를 일으켜 이 즐거운 낙원에 놓아달라고 내가 원하더이까?”라는 구절(존 밀턴, 『실낙원 2』, 조진권 옮김 (파주: 문학동네, 2010), 163.)에서 따왔다. 10편으로 구성된 1667년 판본에서는 9편 743열에서 745열,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를 따라 12편으로 구성된 1674년 판본에서는 10편의 동일한 열에 적힌 구절이다. 메리 셸리는 『프랑켄슈타인』의 초판에서, 서문에 앞서 실낙원의 이 구절을 인용한다.

44) 비록 “혼란”으로 내가 의미하는 바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과학적 카오스 이론의 잠재적 응용에 관해 가능해 보기란 흥미롭다. 카오스 이론이 물질적 귀속의 불안정한 행렬에서 젠더화된 정체성의 안정적 구조가 출현하는 것을 본뜨고, 카오스 이론을 상대적으로 간단한 젠더 지정 절차에서 급증하는 젠더 정체성의 생산에 적용하는 것 말이다.

- ❖ Green, Richard, and John Money, eds. *Transsexualism and Sex Reassignment*.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69.
- ❖ Guillaumin, Colette. "Race and Nature: The System of Marks." *Feminist Studies* 8 (1988): 25-44.
- ❖ Homans, Margaret. "Bearing Demons: Frankenstein's Circumvention of the Maternal." *Bearing the Word*. Chicago: Chicago UP, 1986. 100-19.
- ❖ Irvine, Janice. *Disorders of Desire: Sex and Gender in Modern American Sexology*. Philadelphia: Temple UP, 1990.
- ❖ Jacobus, Mary. "Is There a Woman in this Text?" *Reading Woman: Essays in Feminist Criticism*. New York: Columbia UP, 1986. 83-109.
- ❖ Kahler, Frederic. "Does Filisa Blame Seattle?" Editorial. *Bay Times* [San Francisco] 3 June 1993: 23.
- ❖ Kessler, Suzanne J., and Wendy McKenna. *Gender: An Ethnomethodological Approach*. Chicago: U of Chicago P, 1985
- ❖ Laqueur, Thomas. *Making Sex: Body and Gender from the Greeks to Freud*. Cambridge, MA: Harvard UP, 1990.
- ❖ Meyer, Morris. "I Dream of Jeannie: Transsexual Striptease as Scientific Display." *The Drama Review*. 35.1 (1991): 25-42.
- ❖ Mikuteit, Debbie. Letter. *Coming Up!* Feb. 1986: 3-4.
- ❖ Nanda, Serena. *Neither Man Nor Woman: The Hijras of India*. Belmont, CA: Wadsworth, 1990. (세레나 난다. 『히즈라: 남자도 여자도 아닌』. 김경학 옮김.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8.)
- ❖ O'Hartigan, Margaret D. "I Accuse." *Bay Times* [San Francisco] 20 May 1993: 11.
- ❖ Raymond, Janice G. *The Transsexual Empire: The Making of the She-Male*. Boston: Beacon, 1979.
- ❖ Roscoe, Will. "Priests of the Goddess: Gender Transgression in the Ancient World."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Meeting. 9 January 1994. San Francisco.
- ❖ Rubin, Gayle. "The Traffic in Women: Note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Sex." *Toward an Anthropology of Women*. Ed. Rayna R. Reiter.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5. 157-210. (게일 루빈. 「여성 거래: 성의 '정치경제'에 관한 노트」, 『일탈: 게일 루빈 선집』. 신혜수·임옥희·조혜영·허윤 옮김. 서울: 현실문화연구, 2015, 89-147.)
- ❖ Russo, Vito. *The Celluloid Closet: Homosexuality in the Movies*. New York: Harper and Row, 1981.
- ❖ Shapiro, Judith. "Transsexualism: Reflections on the Persistence of Gender and the Mutability of Sex." *Body Guards: The Cultural Politics of Gender Ambiguity*. Ed. Julia Epstein and Kristina Straub. New York: Routledge, 1991. 248-79.
- ❖ Shelley, Mary.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Orig. pub. 1817. New York: Signet/NAL, 1965. (초판은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이나경 옮김. 파주: 아르테, 2020. 2판은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 이미선 옮김. 서울: 황금가지, 2018.)

- ❖ Stoller, Robert. *Sex and Gender*. Vol. 1. New York: Science House, 1968. The Transsexual Experiment. Vol. 2 of *Sex and Gender*. London: Hogarth, 1975.
- ❖ Stone, Sandy. “The Empire Strikes Back: A Posttranssexual Manifesto.” *Body Guards: The Cultural Politics of Gender Ambiguity*. Ed. Julia Epstein and Kristina Straub. New York: Routledge, 1991. 280-304.
- ❖ Williams, Walter. *The Spirit and the Flesh: Sexual Diversity in American Indian Culture*. Boston: Beacon, 1986.
- ❖ Wittig, Monique. “The Mark of Gender.” *The Straight Mind and Other Essays*. Boston: Beacon, 1992. 76-89. (모니크 위티그. 「젠더의 표식(1985)」, 『모니크 위티그의 스트레이트 마인드: 이성애 제도에 대한 전복적 시선』. 허윤 옮김. 서울: 행성B, 2020, 169-190.)